어른·아이 모두 보듬어주는 '그림책' 같이 읽어요

1988년 류재수 '백두산…' 창작 그림책 시대 열어
이수지·최덕규 작가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
백희나·조은영 등 작품 한국그림책 세계서 주목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책을 보는 건 처음이에요. 새로운 경험이라 신선하고 음악 덕분인지 마음이 몽글몽글해요."

"음악과 일체되는 느낌으로 동화책을 봤어요. 글이 없으나 글로 가득한 느낌~ 그림에 멜로디가 입혀진 느낌이었어요."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를 읽은 독자들이 유튜브 '비룡소 TV' 관련 영상에 단 댓글이다. 책날개에 있는 QR 코드를 재생하면 이탈리아 작곡가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중 '여름'의 선율이 흐른다. 작가는 "격렬하게 즐거운 물놀이와 한여름의 변화무쌍한 날씨, 그리고 비발디. 이렇게 서로 만나면 뭐라도 나오겠다는 상상을 했다"고 창작의 도를 밝혔다. 그림책을 펼친 독자들은 마치 연주회장에 온 듯 비발디의 협주곡을 들으며 한여름 풍경 속으로 빠져드는 듯 한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지난 2월 한국 그림책 작가 두 명이 이탈리아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했다. 61개국에서 2215건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비룡소)와 최덕규 작가의 '커다란 손'(윤에디션)이 픽션 부문과 논픽션 부문에 각각 선정됐다.

또한 이 작가는 3월에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일러스트레이터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에는 백희나 작가가 세계적인 아동문학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역량있는 한국 그림책 작가들의 작품이 세계 출판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초의 그림책은 365년 전인 1657년 교육신학자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가 펴낸 '오르비스 젠수알리움 픽투스(Orbis Sensualium Pictus)'이다. 국내에서는 범지출판사에서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해-그림으로 배우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올해는 '어린이 날' 제정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더불어 한국 동화 역시 100년의 나이테가 새겨졌다. 정병규 작가는 '우리 그림책 이야기'(행복한 아침독서)에서 창작 그림책 시대를 ▲1988~1997년(창작 그림책의 시대가 열리다) ▲1998~2007년(그림책, 줄기를 뻗다) ▲2008~2018년(꽃피우고 열매 맺는 그림책)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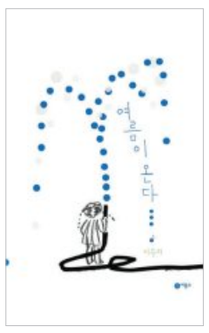
본격적인 한국 그림책 역사는 40년 안팎이다. 1988년 류재수 작가가 글과 그림을 모두 완성한 '백두산 이야기'(통나무)는 한국 창작 그림책 시대의 물꼬를 트는 기념비 같은 작품이다. "단행본 그림책이 흔치 않던 시기에 마치 평지에서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오른 형상"(정병규 작가)처럼 세상에 첫 선을 보였다. 도올 김용옥 교수와 일본 출판사 대표의 평을 통해 '백두산 이야기'의 위상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향후 한국의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이 책은 서낭당 고개에 우뚝 솟은 낙락장송과도 같은 모습으로 끊임없는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도올 김용옥)

"나는 이 책을 통해 한민족이 분단된 현실과 통일에 대한 작가의 강렬한 소망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아픔을 일본인인 나와 우리들이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그림책으로서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일본의 어른과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일본 후쿠인칸쇼텐 출판사 마쓰이 다다시 사장)

1990년대부터 시공사와 비룡소, 창비, 보림 등이 창작 그림책을 본격적으로 펴내기 시작했다. 1996년 첫 선을 보인 '강아지똥'(권정생 글·정승각 그림)은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2011년 그림책 처음으로 100만부 판매기록(개정 3판 27쇄)을 세웠다. 1980년대~1990년대에 태어난 새로운 작가들이 등장,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룬 괄목할만한 작품을 잇달아 발표한다. 이에 발맞춰 세계 3대 그림책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센상'과 '볼로냐 라가치상' 'BIB(브라티슬라바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 상'을 수상하는 작가들이 늘어났다.

1987년 강우현 작가의 '사막의 공룡'이 BIB 황금패상을 수상했고, 2004년에 조호상·윤미숙 작가의 '팥죽할멈과 호랑이'와 신동준 작가의 '지하철은 달려온다'가 라가치상 픽션부문과 논픽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류재수 작가의 '노란 우산'은 2002년 뉴욕타임스 선정 최우수 그림책과 국제 어린이 도서협의회(IBBY) 선정 세계의 우수 그림책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2011년에는 조은영 작가의 '달려 토토'가 BIB 그랑프리를, 유주연 작가의 '어느 날'이 BIB 황금사과상을 수상했다. 2015년에는 정유미 작가의 '나의 작은 인형상자' 등 한국 그림책 6종이 볼로냐 라가치상 5개 전 부문을 입상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한국 그림책 시장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들이 보는 책으로 여겨지던 그림책의 새로운 독자층이 어른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림책의 특성인 압축된 메시지와 예술적인 이미지가 어른들에게 '정서적 치유'를 안겨주며 그림책을 찾는 어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한국 작가들의 '새로운' 그림책을 기대한다. /송기동 기자 song@

최근 '볼로냐 라가치상'(픽션 부문)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일러스트레이터 부문)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와 그림책 '여름이 온다'(2021년 작).

꿈과 상상력이 '쑥쑥'

다가오는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다. 동화는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책이다. 가정의 달 5월, 어린이와 함께 읽으면 좋은 동화책을 소개한다.

▲**봉놋방 손님의 선물(김옥애 지음)**=다산의 수많은 책 가운데 '아학편'은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한자 2000자를 엮어 만든 책이다. 동화는 아이들의 교육에 정성과 열의를 다했던 다산의 정신을 담고 있다. 동화는 가난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한 봉주라는 소녀와 한양에서 유배를 온 봉놋방 손님 다산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마을 서당 훈장에게 '천자문'을 빌려 공부를 하던 봉주는 그만 책을 잃어버리고 갖은 괴롭힘에 시달린다. 때마침 봉놋방 손님으로부터 '아학편'을 받게 된 봉주는 소원이었던 글공부를 하게 된다.

▲**두근두근 묵정밭(이성자 지음)**=오랫동안 버려져 거칠어진 밭을 일컬어 묵정밭이라고 한다. 잡초만 무성한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지기 쉽지만 그곳의 풀숲에도 무수히 많은 작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 동화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민규 할머니네 밭 이야기이다. 허리를 다친 민규 할머니가 서울 아들네 집으로 떠나 있는 동안 밭에는 많은 생명들이 찾아든다. 개망초를 비롯해 벌과 나비, 풍뎅이, 무당벌레, 거미도 들어온다. 그러나 얼마 후 아빠는 할머니가 더 이상 밭을 가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밭을 팔려고 하는데….

▲**천년의 아이와 동물 병정(정소영 지음)**=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역사적 사실을 우의화해 판타지로 구성한 동화. 이야기는 주인공 건영이 누나 송희, 친구 수정이와 함께 금남로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 꼬마병정인형을 사러가면서 펼쳐진다. 그러나 가게 문이 닫혀 있어서 이들은 도청 앞 시위 현장에 가게 된다. 그 현장에서 발포가 있었고 건영은 총에 맞아 죽고 만다. 건영의 아버지와 누나는 도자기로 만든 통나무배와 열두 띠 동물병정, 이팝나무 꽃을 망월동 건영의 무덤 상석 위에 올려놓고 시간여행을 떠난다.

▲**앵앵이와 매암이(이미례 지음)**=매미가 될 굼벵이들의 이야기를 다루 장편동화. 굼벵이로 땅속에서 7년을 보내는 매미에게 기나긴 시간은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꿈을 키우는 시간이다. 밖으로 나오면 고작 반 달을 살다 흔적을 감추지만 매미는 뜨거운 한여름 온 세상을 노래로 채운다. 두 마리의 굼벵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자신만의 아름다운 꿈을 키워 나간다. 작가는 세상의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고 저마다의 노래라고 본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만의 노래를 갖고 태어났기에 자신만의 노래를 부르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난 나쁜 친구야!(배다인 지음)**=아이들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이야기를 모았다. 아이들 간에 벌어지는 갈등과 사소한 다툼, 교실에서 벌어지는 소동들은 현실적이면서도 지혜와 용기를 준다. 어린 시절 또래 친구들과의 갈등은 아이들에게 난생처음 겪는 역경이라는 점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헤쳐 나가기 어렵다. 한 번쯤 겪을 법한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 갈 힌트가 다섯 편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다.

▲**동생 만들기 방해 작전(염연화 지음)**=다둥이 가정에서 자란 형제들이 새 가족을 맞아들이는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세 번째 동생이 태어나는 것을 극구 막아보려는 한 아이의 이야기다. 작가는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에서 한걸음 나아가 입양 형태의 가족으로 변하게 된 한 가정의 모습을 일상적으로 풀어낸다. 4형제와 부모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주인공 태윤이가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since 1982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